

“소금박람회 1800만달러 수출계약”...완전 허탕 정원박람회 투자 호텔 5개 개막전 설립 불투명

전남도 ‘실적 부풀리기’

내실 뒷전 낫 뜨거운 성과 알리기 빈축

국내 천일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아 열린 소금박람회의 수출계약 금액을 과대포장하는 등 전남도의 ‘실적 부풀리기’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소금박람회를 통해 단 한 건의 정식 수출계약도 성사되지 않았는데, 무려 1800만달러 어치의 수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또 순천만정원박람회(2013년 4월 20일~10월 20일) 관광객 맞이 위해 최근 전남도가 유치한 호텔 5곳 중 상당수는 박람회 개막전 개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실보다는 실적에 급급해 투자유치 성과를 알리려다 빚어진 일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10~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소금박람회’에 참여한 8개 업체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베트남 등지의 바이어와 18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8개 업체 모두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고, 1개의 업체만 소금 샘플 제공 등을 위해 가계약만 맺은 상태다.

베트남과 600만달러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A업체 등 대부분 업체는 바이어와 상담만 한 상태였다. 태국과 200만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전남도가 발표한 B업체 등은 아예 바이어를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0만달러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고 홍보된 C업체는 실적을 묻는 박람회 관계자들에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전남도는 거짓이 수출 실적을 부풀렸다.

국비(1억원)와 도비 등 4억1000만 원을 들여 마련된 소금박람회가 이처럼 내실 없이 실적만 부풀려져 업체 관계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바이어의 질문을 그대로 실적으로 보고하더라”면서 “지난 2010년 소금박람회에서도 미국과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1달러 어치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호텔 600실 건립을 위해 최근 세

결한 투자유치도 실속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정원박람회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5개 업체와 600실 규모의 호텔 건립 투자협약(투자액 2079억원)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인허가를 받은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호텔들은 언제 건립될지도 불투명하고, 허가를 받은 곳도 내년 4월 개막 전 개장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실제 전남도와 15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기로 협약한 D업체는 2015년에야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순천만정원박람회 숙박시설로는 전혀 맞지 않는데도 실적에 포함시켰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출 계약은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이며, 수출이 성공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정원박람회 숙박 시설 중 인허가를 받은 2곳은 충분히 개막전 개장이 가능하며, 남은 3곳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F1 질주만 남았다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이틀 앞둔 10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각 축전팀의 메카닉 요원들이 타이어 등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싸이 효과...F1도 뜬다

한국대회 관심 고조...입장권 판매 25% 늘 듯 축하공연·체커플래거 이어 깜짝 이벤트 준비

“오랜, F1 스타일~” 오는 12일 개막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인기가 ‘싸이 효과’로 치솟고 있다. F1 홍보대사와 체커플래거 등을 맡은 가수 싸이가 최근 전 세계 음악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유명 동영상 사이트 등을 통해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어 F1 한국대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입장권 판매도 큰 폭으로 늘었고, 유명 드라이버인 니코 로스베르크(독일·메르세데스) 등 F1 선수와 팀 관계자들도 “싸이 공연을 언제 볼 수 있느냐?”며 F1 조직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F1 서킷에 때 아닌 ‘싸이 열풍’이 불고 있다.

10일 F1 조직위원회는 “결승전(14일)을 마친 뒤 싸이가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덩달아 입장권 판매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하게 추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해 대회에 비해 입장권 판매가 25%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직위는 또 “F1 한국대회의 홍보를 위해 싸이가 결승전 당일 포디움(시상대)에서 깜짝 이벤트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홍보대사인 싸이는 서킷에서 완주를 알리는 체커플래거를 흔들 체커플래거에도 선정됐다. 싸이가 체커플래거를 흔드는 모습은 TV 등을 통해 전세계에 방영될 예정이다.

또 싸이는 결선이 끝난 오후 6시부터는 F1 경주장 내 상설공연장에서 F1 한국대회를 축하하는 ‘싸이 F1 축하공연’을 한다. 이 공연은 대회 전일권(12~14일)이나 일 입장권 판매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싸이 축하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싸이 공연도 보고 F1도 보려는 관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싸이를 만나고 싶다”는 F1팀 관계자와 드라이버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메르세데스팀의 두번째 드라이버인 니코 로스베르크는 10일 일본 매체인 오토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경주를 마친후 싸이의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을 ‘강남 크레이지’라고 표현하면서 레이스를 즐기고 싸이 공연도 만끽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입장권 판매는 늘었지만 입장권 평균 가격이 지난 2010년 46만 원에서 올해 32만 원으로 내리고, 1만원짜리 금요일권을 신설하는 등 티켓 가격 거품을 빼 전체 입장 수입은 지난해보다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총장서림 다시 문 연다

지난 8월 문을 닫은 지역 대표 향토 서점인 총장서림이 재개장하기로 했다. <광주일보 8월 27일자 1면>

총장서림은 “다들 잘 준비해 기존 매장(지하 1층·지상 1~2층) 보다 규모를 줄여 재개장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총장서림측은 폐업 신고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지역민들의 문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고심 끝에 재개장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개장하는 총장 서림은 지하 1층의 경우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서적을 판매하고, 지상 3층에 인문·사회·기술과학 등 전문 서적과 일반 서점에서 찾기 힘든 책들을 위주로 한 별도 공간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기존 1·2층은 임대해 주기로 했다.

총장서림 조용석 상무는 “서점으로 번 돈인데, 아쉬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장지원 대표의 의지가 컸다”고 재개장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Law Firm IUS 법무 이우스 설립인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살아있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지역법조문화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법무법인 이우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 | | | |
|---------------|--|------------|--|
| 구성원 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세욱 대표변호사, 전광주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8기 임선숙 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 전여성민우회 대표 사법연수원 28기 서애련 전광주지방법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30기 이병주 전광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31기 강성두 고려대학교학과,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사법연수원 33기 김정호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전남경찰청 인권위원 사법연수원 33기 | 인사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개시 2012년 10월 4일(목) 개소식 2012년 10월 19일(금) 17:00 업무장소 광주 동구 지산동 379-10(동산빌딩 2층, 4층) tel. 062 233 1600 fax. 062 225 7800 |
|---------------|--|------------|--|

이우스는 라틴어로 '법률', '정의'를 뜻하며, 발음이 비슷한 우리말 '이웃'처럼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광주 중심 총장로 복합쇼핑몰

the Road Hills 더로드힐스

광주의 중심 총장로 상권에 품격이 다른 멋진 길! 유럽형 스트리트몰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비전 / 다양한 콘텐츠의 아이템을 중시합니다. 20~30대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টে으로 까다로운 입점기준을 통한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려 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좋은 아이টে으로 경영을 인정받은 오너분들에게 입점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쇼핑하는 유럽스타일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

12월말 오픈예정

40.3m / 46.7m / 66.0m / 83.4m / 96.9m / 127.5m / 139.7m

임대(분양) 문의 062.232.9106 010.4064.9106

기회를 잡아라!
 신축상가임지에 따른 **권리금 0**
 최다 유통고객에 의한 광주권 **최고 중심상권**
 최소 투자비
 전문기에 의한 지속·체계적 **홍보관리**
 총별 이벤트 공간 제공
 전문 홍보관리팀 상주근무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개발 및 교통계획에 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